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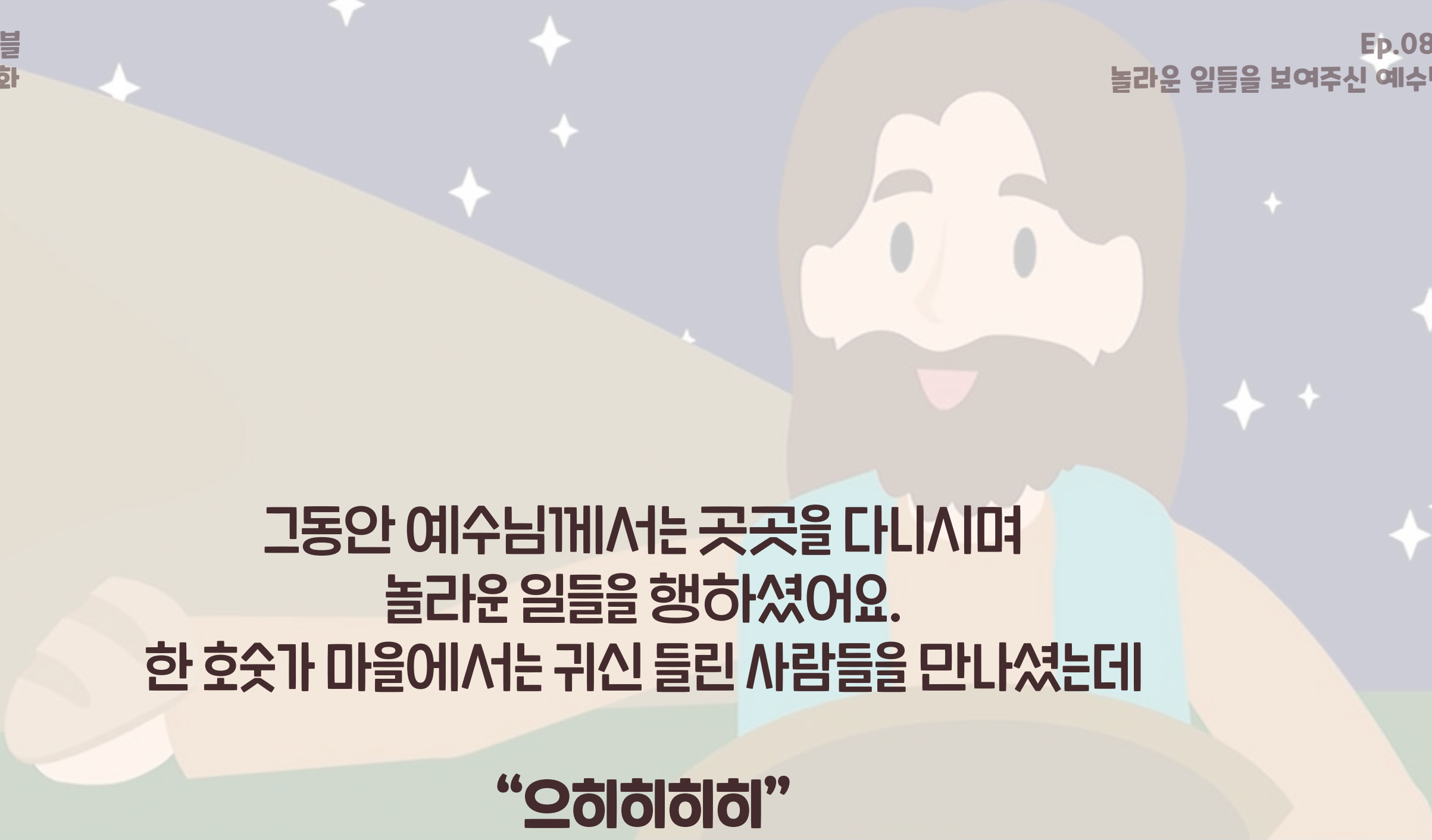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89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예수님

(마태복음 14:15~33, 마가복음 6:31~52,
누가복음 9:12~17, 요한복음 6: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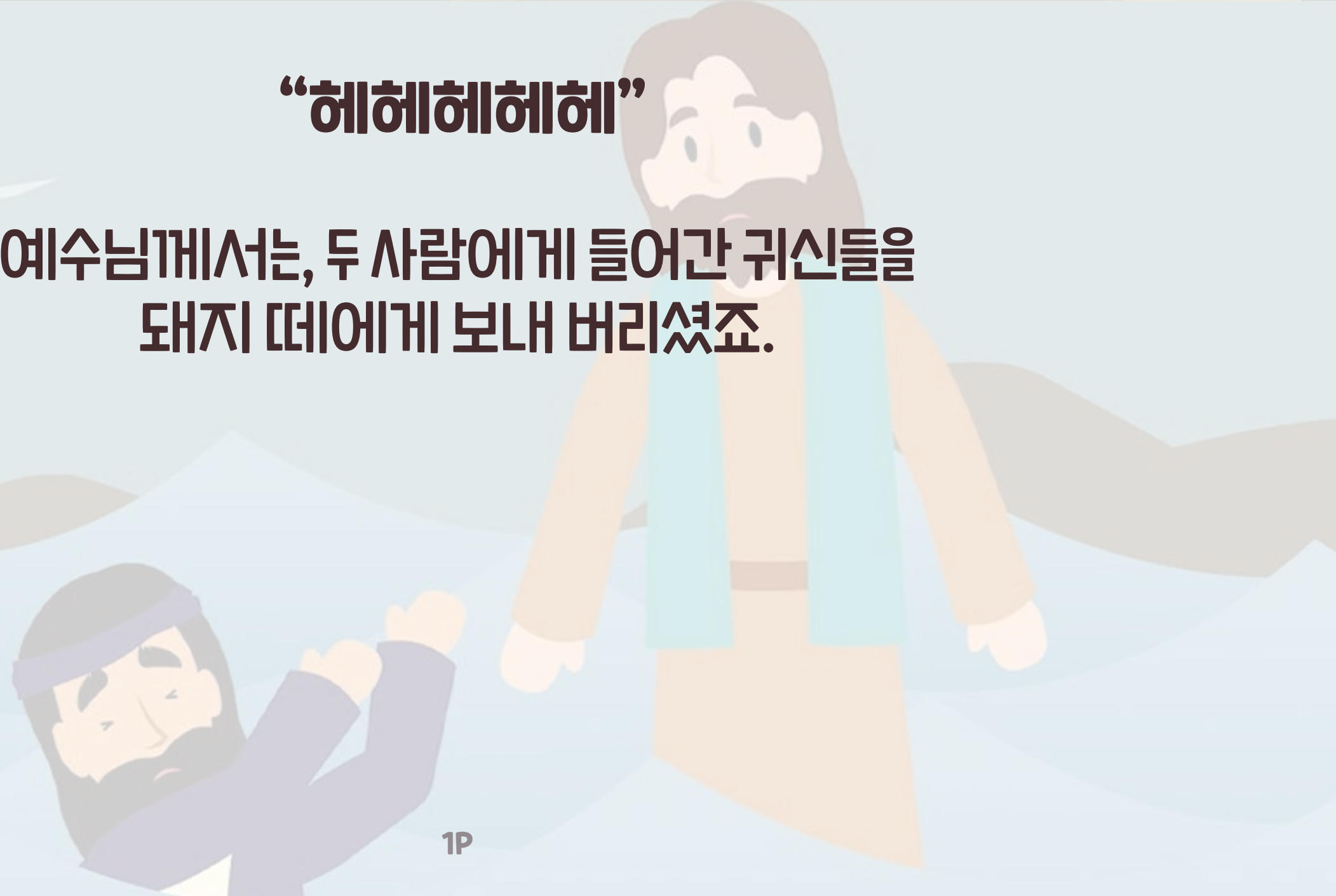




그동안 예수님께서서는 곳곳을 다니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한 호숫가 마을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으히히히히”

“헤헤헤헤헤”



예수님께서서는, 두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들을
돼지 떼에게 보내 버리셨죠.

“더러운 귀신아, 나오거라!”

**그러자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호숫가로 뛰어들기 시작했고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은 정신이 멀쩡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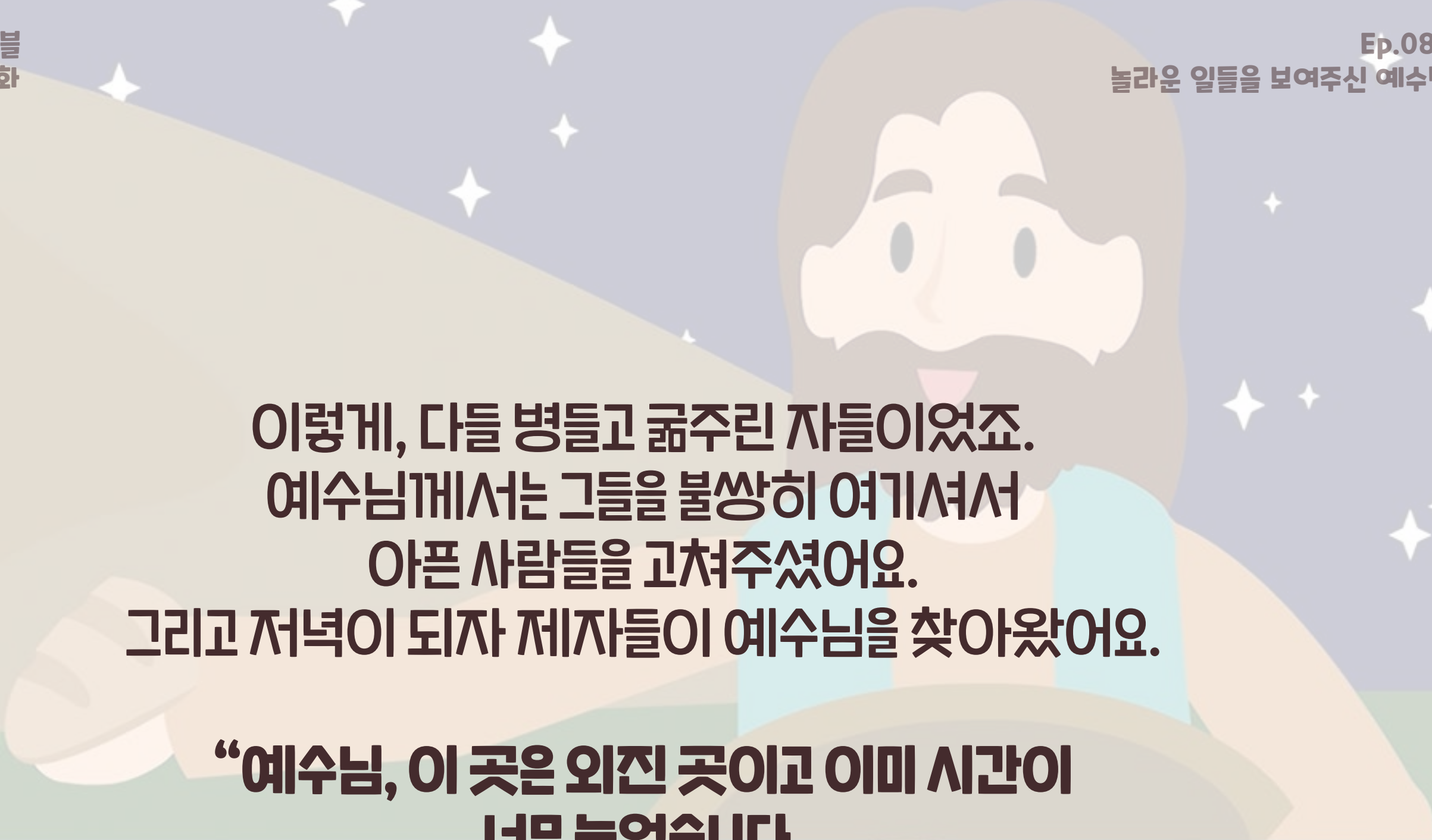
**그밖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중풍 병에 걸린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하지는 못하는 사람
이렇게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어느덧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죠.**

그러던 하루는 예수님께서 아주 외딴 마을을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곳에서 홀로 조용히 지나고 싶으셨죠.

하지만 어느새 주변 마을에 소문이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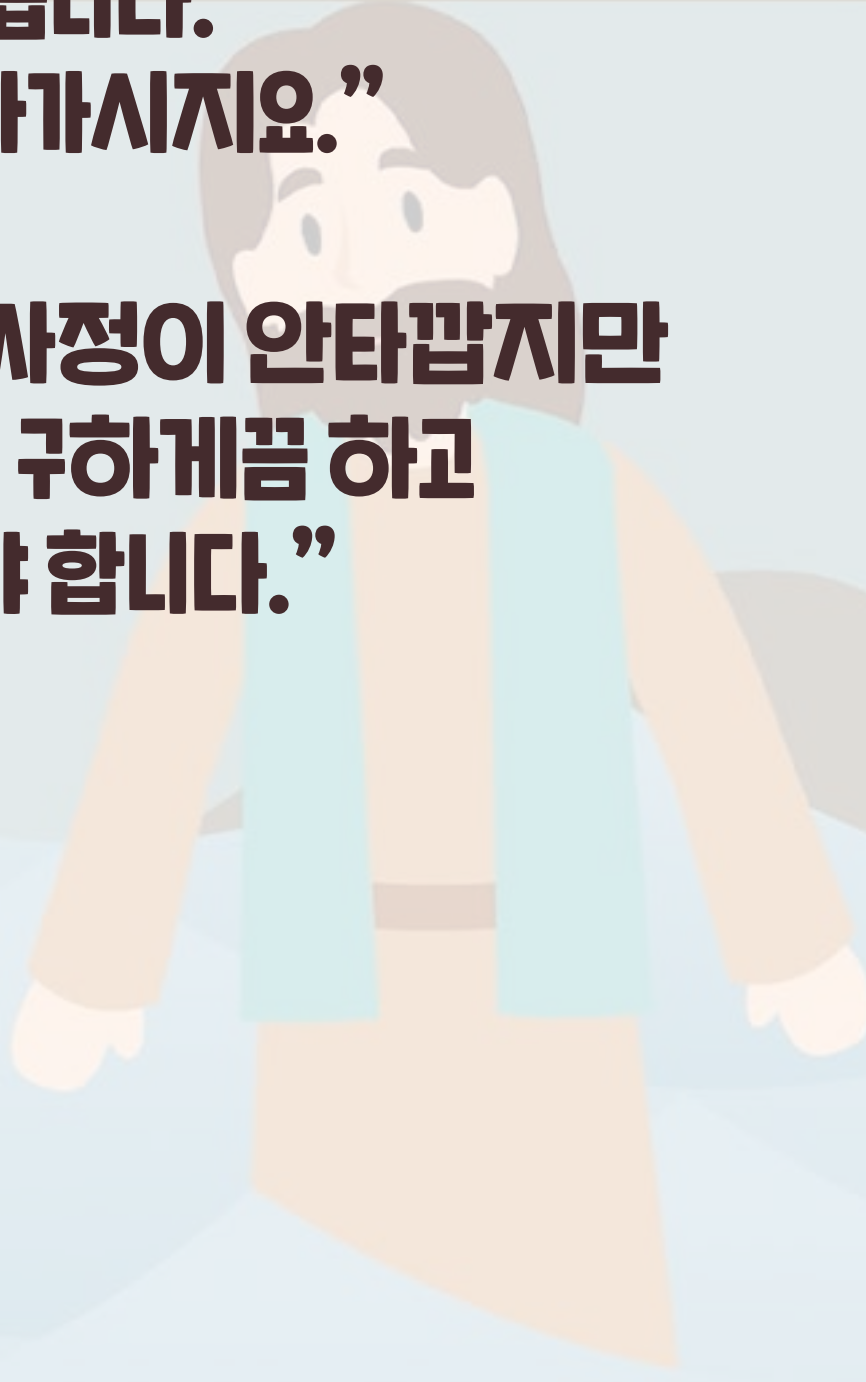
“예수님, 당신은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식구는 며칠 째 끼니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밥을 주십시오.
배가 고파 견딜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들 병들고 굶주린 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이 곳은 외진 곳이고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사정이 안타깝지만
이제 각자 식량을 구하게끔 하고
돌려보내셔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라.”

**“하지만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합하면
못해도 5천 명은 될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이라도 하나씩 사 먹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 때 안드레가 한 남자 아이를 데려왔어요.

**“여기 이 아이가 가진 바구니에 빵 다섯 덩이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에게 있는 음식의 전부입니다.
이걸로 먹여보아야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구니를 내게 가져오거라.
그리고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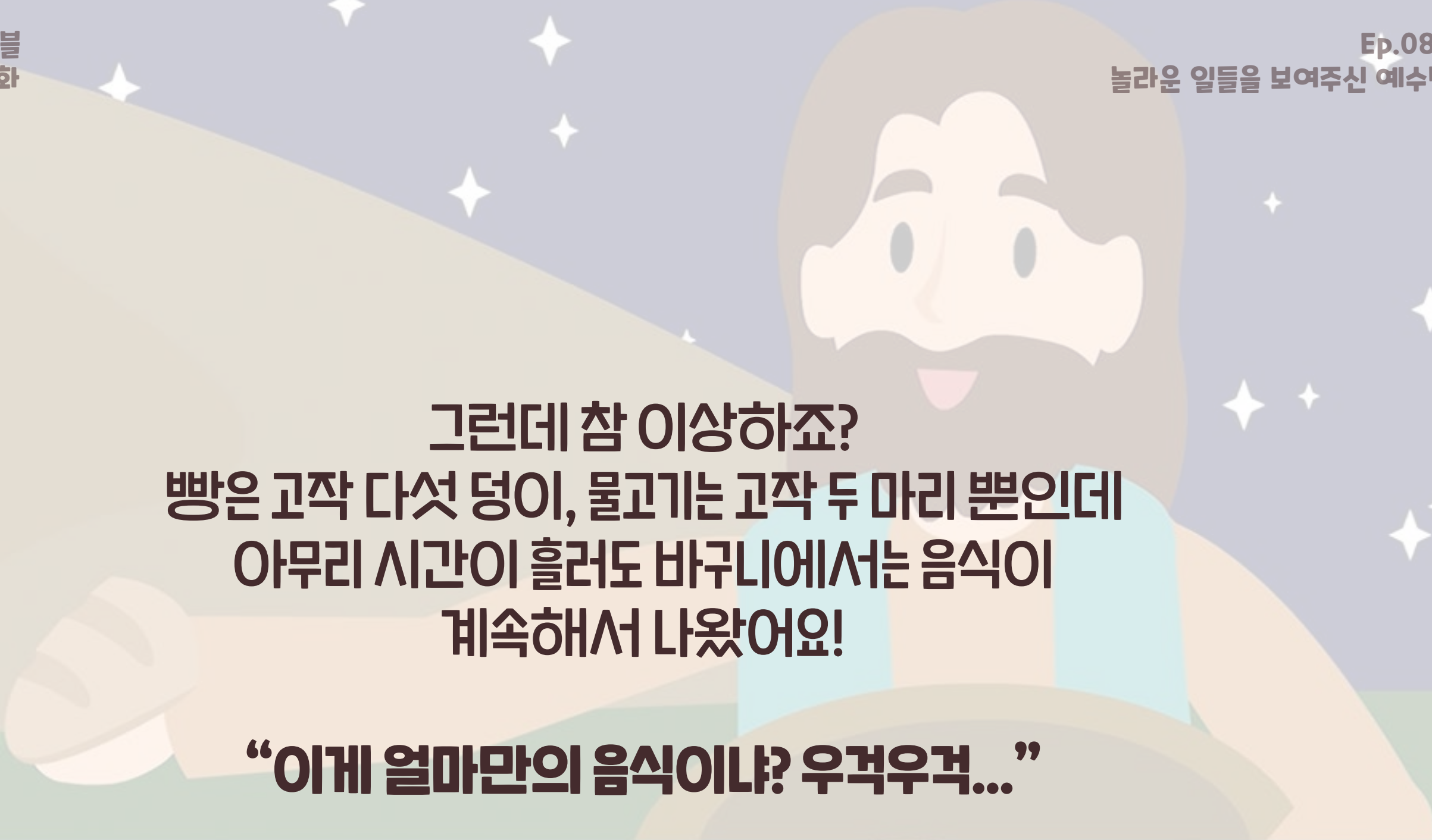
사람들이 수십 명씩 무리지어 벌판 위에 앉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죠.

그리고는 잠시 후, 음식 바구니를 들고 일어서시더니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기 시작했어요!

“자, 내가 떼어주는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제자들은 의아해 하면서도, 열심히 빵을 건네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예수님께서 나누어주시는
생선도 열심히 받아 옮겼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빵은 고작 다섯 덩이, 물고기는 고작 두 마리 뿐인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바구니에서는 음식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게 얼마만의 음식이냐? 우걱우걱...”



“빵도 맛있고, 물고기도 아주 싱싱하구만!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의 얼굴에 모처럼 행복한 표정이 보였어요.
그렇게 오천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남은 음식을 바구니에 모아보거라.”

제자들이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았더니
그 양이 열 두 바구니를 가득 채울 정도였어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 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을 가리켜서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의 생선’이란 뜻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의 마음엔 아직도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산에서 기도를 하다 곧 뒤따라 갈 테니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가 있거라.”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죠.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밤이 되자 호수에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무서운 풍랑이 일기 시작했죠!

“안드레! 어서 돛을 내려라! 이러다 배가 뒤집히겠다!”

**“형님! 바람과 물살이 너무 강해요! 돛을 내려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계속 제자리구만! 이제 어떡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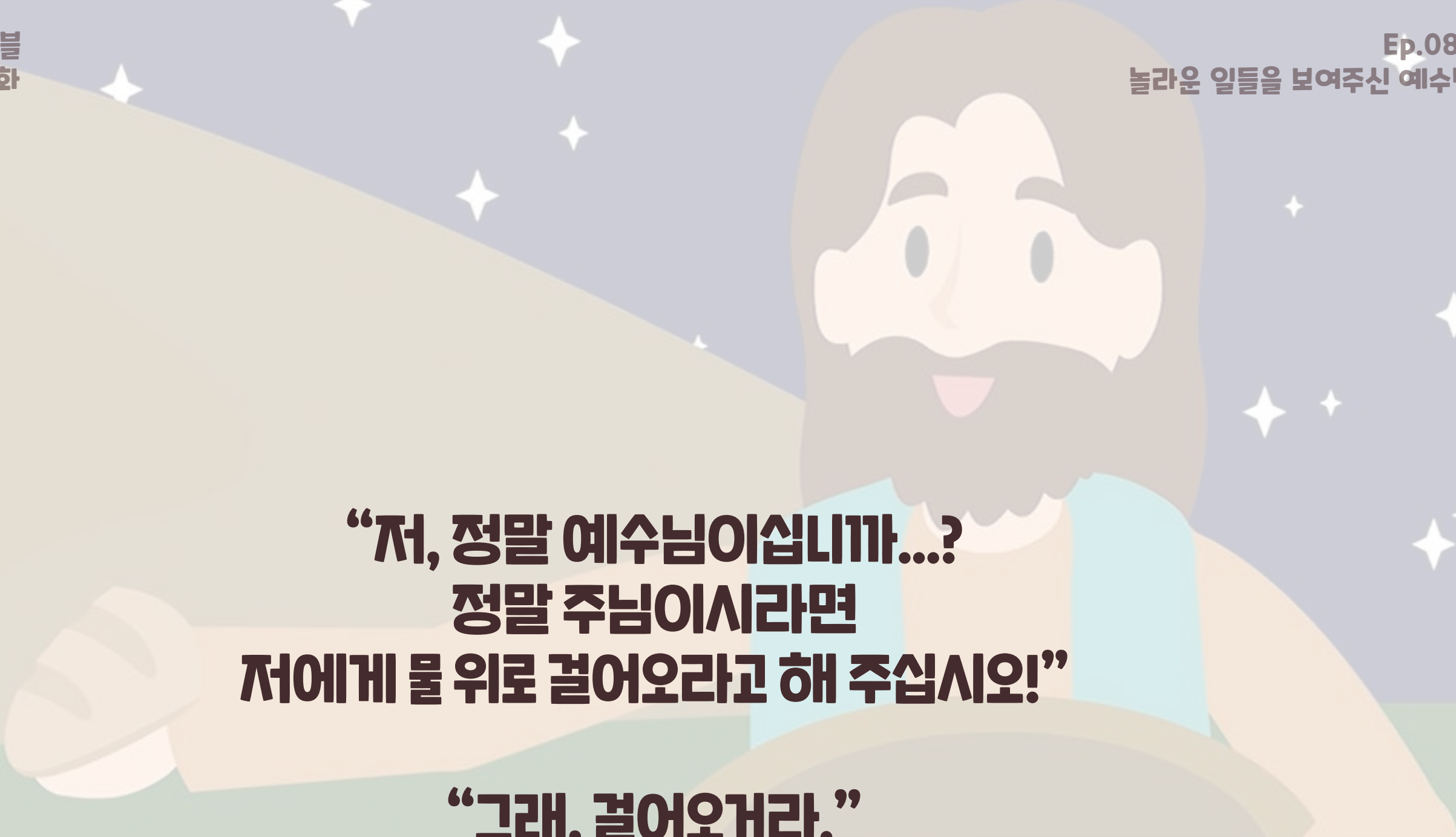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서 4~5km 정도를
이동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건너편 육지까지는 한참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때
요한이 무언가를 보고 소리쳤어요!

“유, 유령이다! 유령이 물 위로 걸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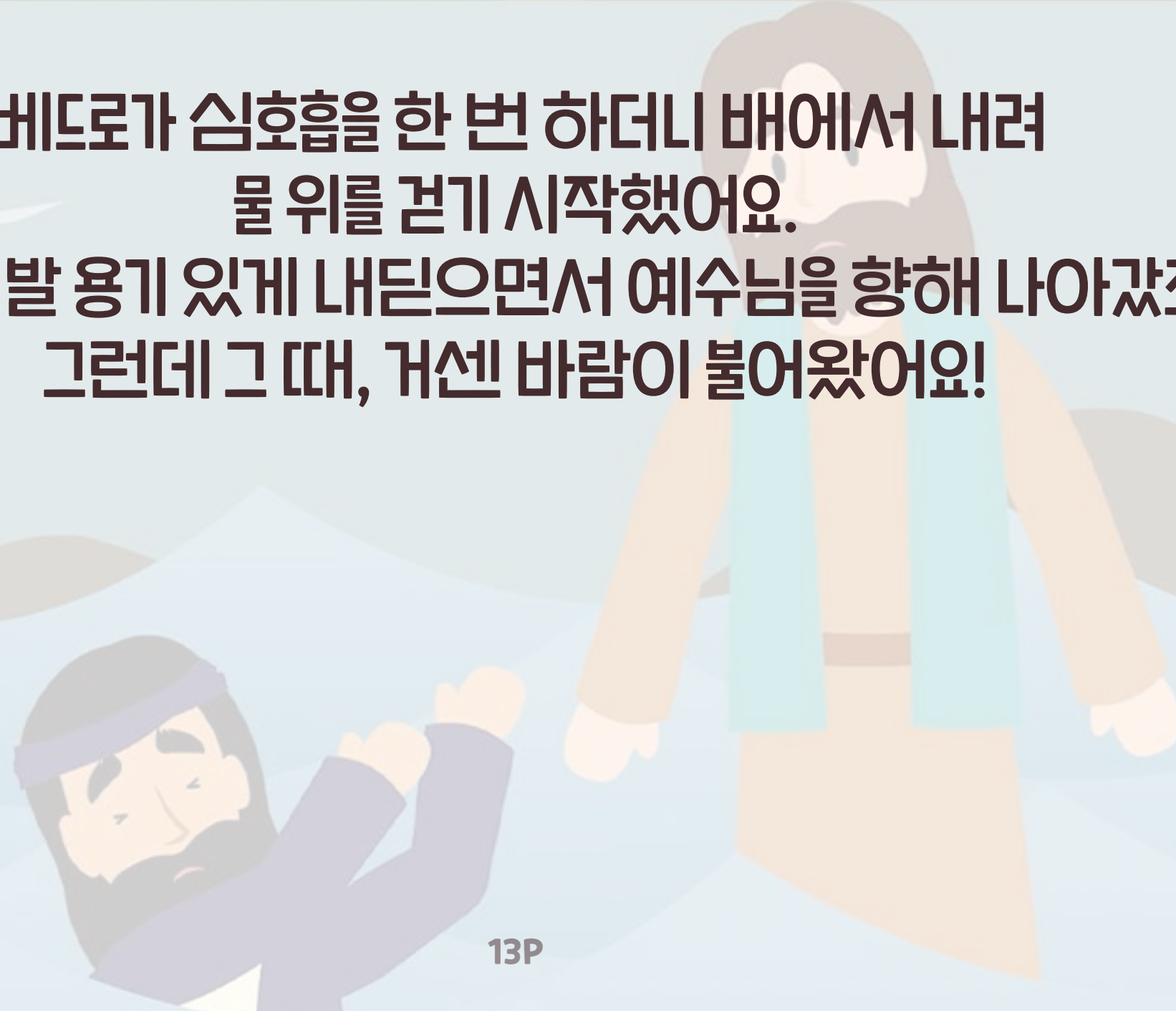
정말이었어요. 사람 형체를 한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었으니 유령이라고 생각할 만도 했죠.
하지만 그 때,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렸어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안심하거라.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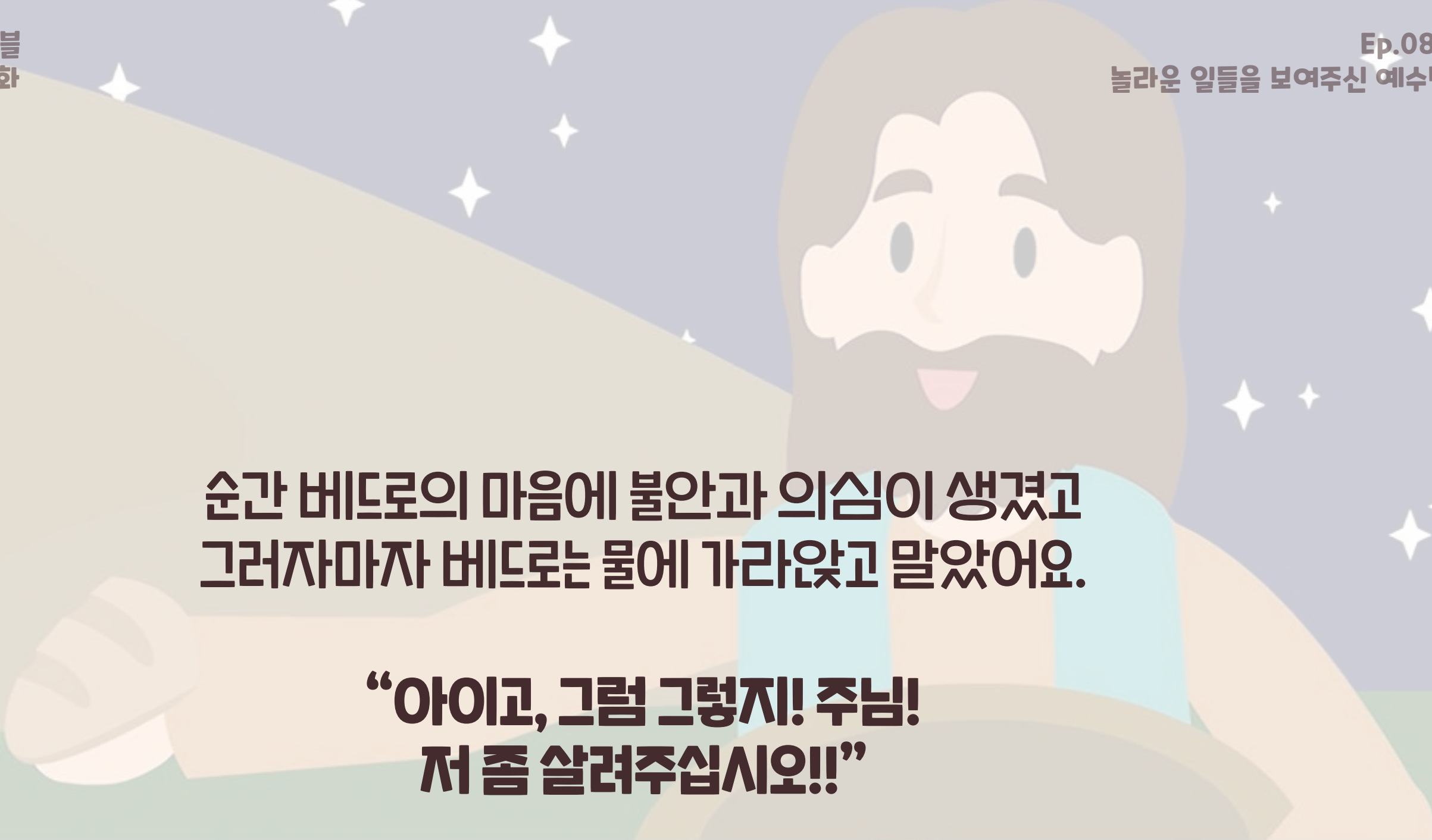


**“저,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 걸어오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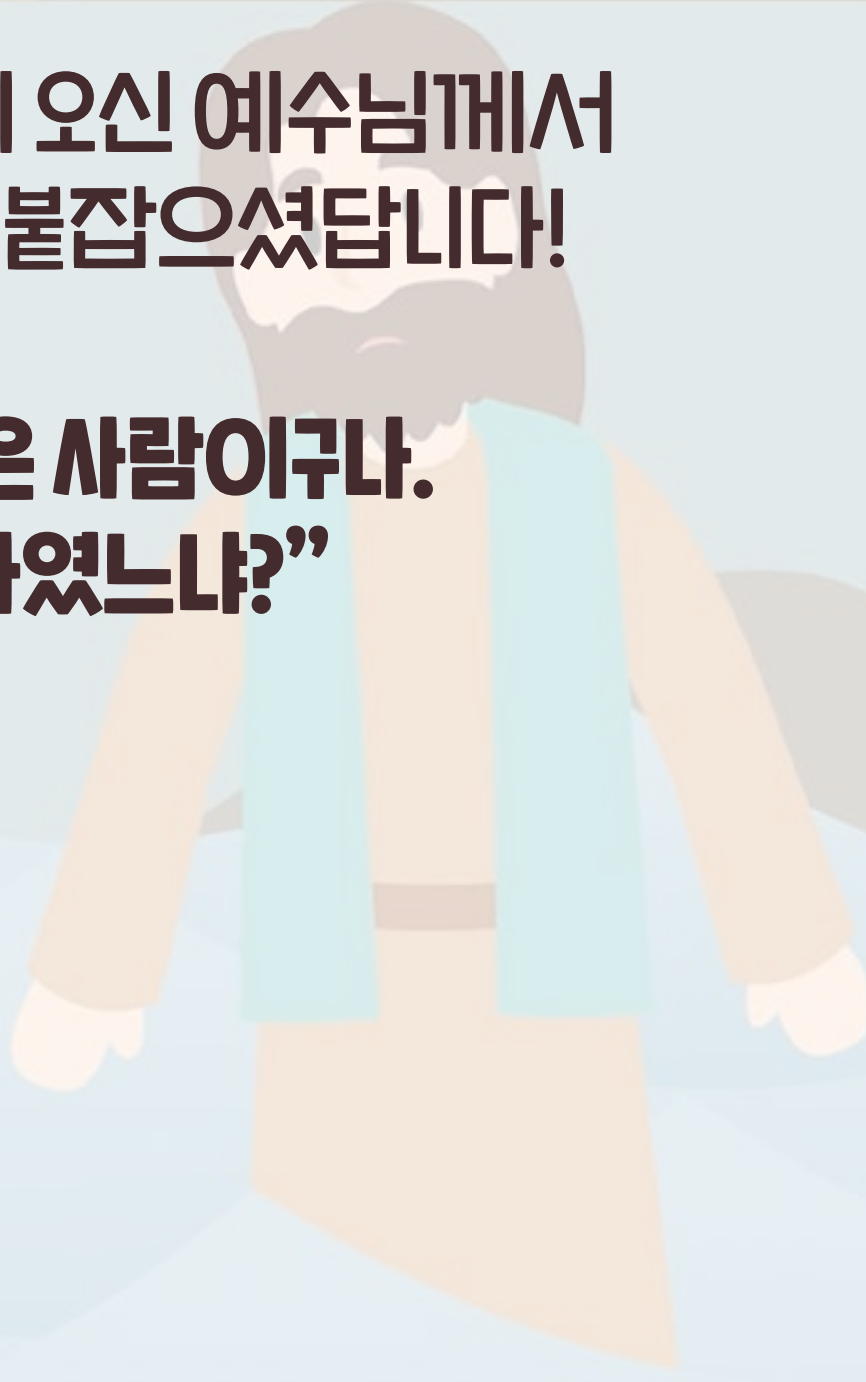


**베드로가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한 발, 두 발 용기 있게 내딛으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죠.
그런데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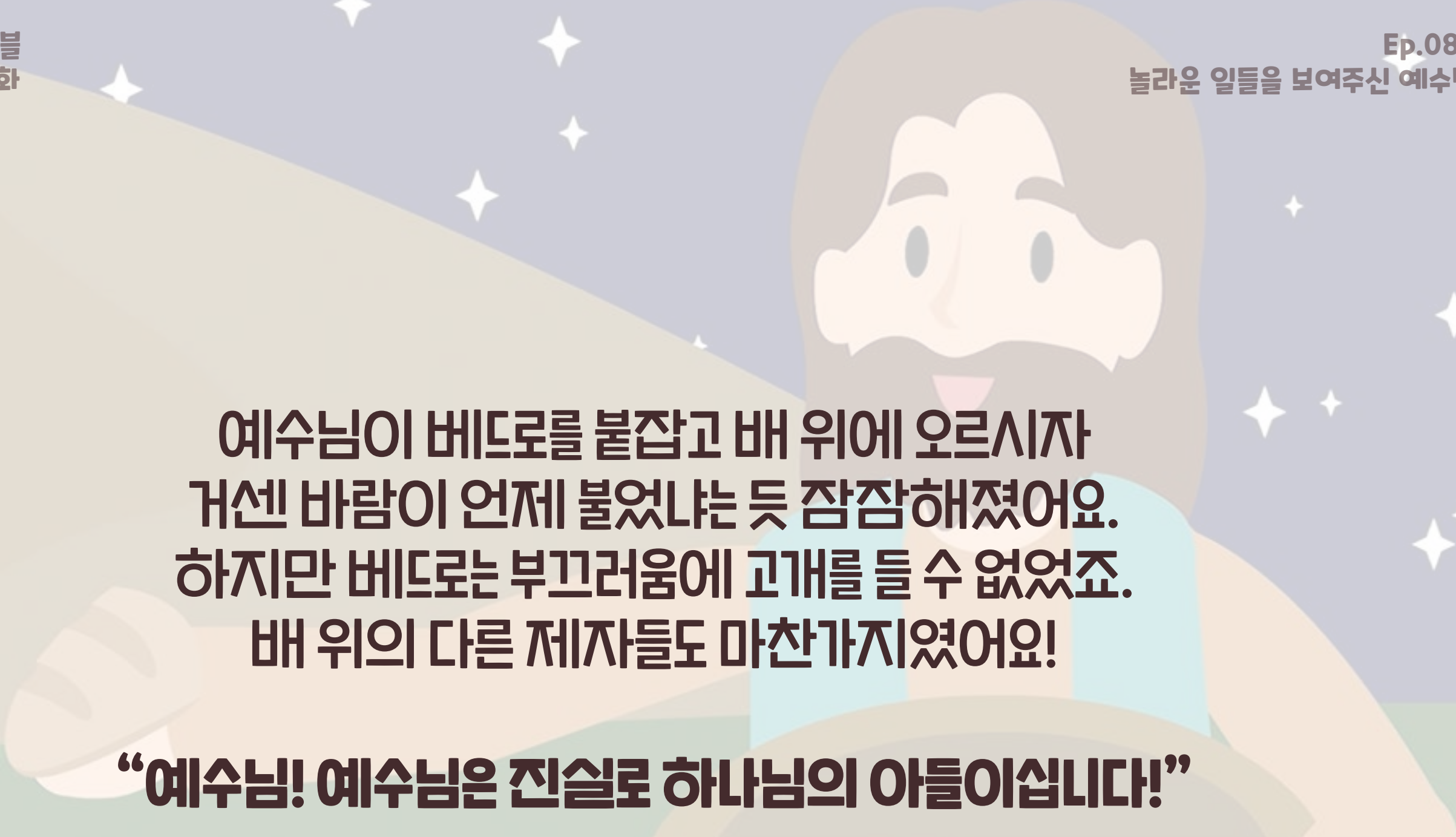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불안과 의심이 생겼고
그러자마자 베드로는 물에 가라앉고 말았어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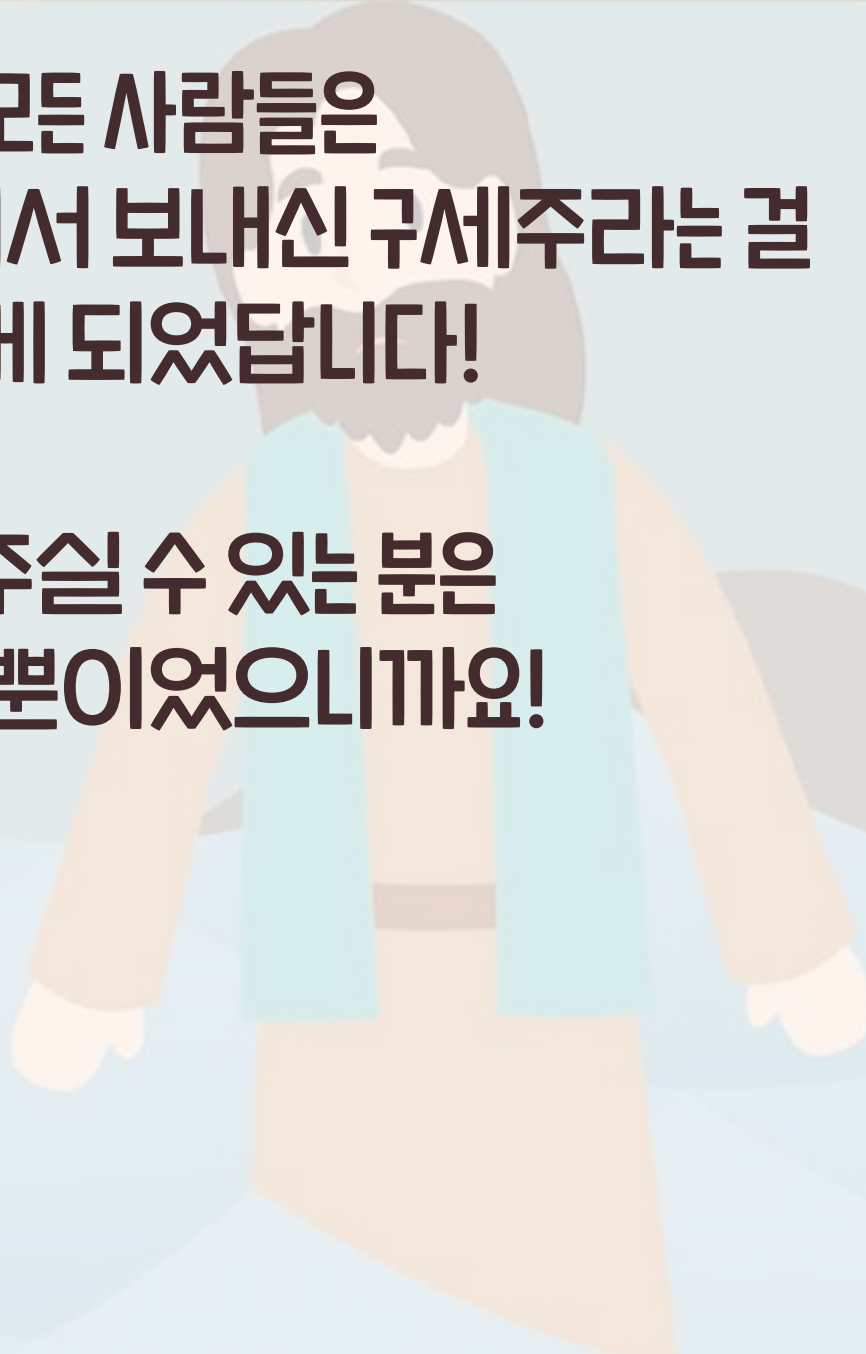
그러자 어느새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너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구나.
왜 의심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배 위에 오르시자
거센 바람이 언제 불었냐는 듯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죠.
배 위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였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 계신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세주 예수님뿐이었으니깐요!

